

화순군 “부담없이 운동하세요” 하니움 실내체육관 활성화 박차

전라남도 화순군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하니움 실내체육관 상시 개방과 관련해 군민의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현재 하니움 실내체육관은 평일 야간과 주말 휴무 시간을 활용해 농구와 피클볼 종목 중심으로 군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있다. 군은 더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입문자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클볼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라켓(매들)과 공을 현장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방침이다.

화순=하병수 기자 khf2014@naver.com



화순군이 하니움 실내체육관 이용활성화에 나섰다. 피클볼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화순군

순창군, 청년 목돈 마련 돕는다 ‘근로자 종자통장’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청년에게 군이 추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 2023년부터 시행돼 순창군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근로 중인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753만9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접수 기간은 16일까지다. 신청은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순창=하병수 기자 khf2014@naver.com

부산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3년간 특수학급 84개 확충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8학급씩 총 84학급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총 39학급을 신증설했다.

이는 당초 연간 증설 계획인 28학급을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따라서 올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총 736학급으로 늘어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적정 배치와 학교 간 과밀 해소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계획에 따른 확충을 넘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특수학급 증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 특수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속도... 연내 첫 삽

공단, 현장설명회 개최... 부지공사 기본설계 착수 대우건설컨소시엄 6개월간 우선시공분 실시 설계 이르면 하반기 착공... 2035년 하반기 개항 목표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발표하고 두 차례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6개월 동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사기간은 총 106개월이며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을 착공해 2035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주관사인 대

우건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고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우건설은 “공사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연약지반과 해상 매립이라는 고난도 공사 역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최근 2년간 토목 분야 1위, 최근 3년간 항만 분야 1위를 기록하는 등 해상항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를 수행하며 초연약지반 매립과 침하 관리 경험을 축적했다.

또 국내에서는 거가대로 해저 침매터널 시공을 통해 가덕도 인근 해상-연약지반 공사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대형 국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최적 공법을 검토하는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우건설컨소시엄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도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고난도의 토목사업 참여는 지역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 지역 전문 건설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 다양한 일감이 공급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개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사 등 관계 기관과 업무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설계 단계부터 공사기간 단축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광역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과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다”며 “사업이 차질 없

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부권 관문 공항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김천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종합 인구전략’ 가동

인구정책과 신설... 교육·과학·외국인 정책 연계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역량 집중

김천시가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종합적인 인구 정책 추진에 나섰다.

10일 김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정책과 신설에 이어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인구정책과는 △인구정책팀 △교육협력팀 △녹색미래과학관팀 △외국인공동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시는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미래 과학 인재 양성·외국인 정착 지원까지 연계한

종합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구정책팀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발굴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2025년 우수등급(40억 원), 2026년 A등급(24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입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

자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담지원금과 기숙사비 지원·20대 결혼 혼수비용 지원·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도 확대 추진하고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단순 인구 유입을 넘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육협력팀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지정돼 지역 대학·산업체·초중고가 연계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진로·진학 지원, 방과 후 및 특성화 교육 확대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개소 예정인 김천시 진학상담센터에서는 일대일 상시 진학 상담과 학생부 컨설팅·입시박람회·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팀은 미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과학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 원리를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메이커 활동과 디지털 창작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과학 경연 행사인 ‘무한상

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을 비롯해 과학의 날 기념 과학 미션 프로그램·과학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과학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공동체팀은 증가하는 외국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과 외국인 정책 발굴, 외국인 현황 조사 및 정책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영복 인구정책과장은 “인구 문제는 단순한 인구 수 감소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이다”라며 “인구·교육·과학·외국인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김천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부산시 ‘쩨의 전쟁’ 열린다... 리브 골프 코리아 유치

5월28~31일 아시아드ECC 개최 관광·마이스·경제 효과 기대

부산광역시가 세계적인 골프 리그인 리브 골프의 국내 대회인 ‘2026 리브 골프 코리아’를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5월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에 출범된 ‘리브 골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가 후원하는 프로 골프 리그로 높은 상금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리브 골프 코리아는 인천 짝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으며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2026 리브 골프 코리아’의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

2026 리브 골프는 10개국(북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 상금 약 4.2억 달러(약 6100억 원)를 두고 경쟁한다. 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호주·홍콩·싱가포르에 이어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6리브 골프는 대회별 상금 3000만 달러(약 440억 원)를 두고 세계급 골퍼 선수들이 경쟁하게 된다. 한국팀으로는 안병훈(캡틴), 대니 리, 송영환, 김민규가 출



부산광역시가 2026 리브 골프 코리아를 유치했다. LIV GOLF KOREA 2025가 열리고 있다. 부산광역시

전한다.

대회는 지난날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를 시작으로 호주(에들레이드),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완료했다. 그 이후로는 북미(미국 5개 주, 멕시코), 유럽(스페인, 영국), 아프리카(남아프리카), 아시아(홍콩, 싱가포르, 부산)에서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리브 골프는 문화 결합형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 젊은 층 참여 비중이 높을뿐 아니라 글로벌 골프 팬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최국의 대표 아티스트를 초청해

대회와 공연을 결합하는 페스티벌형 골프 이벤트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미국남자프로골프투어(PGA), 디피(DP)월드투어와 차별화된다.

국내에서도 2025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에 지드래곤(G-DRAGON), 아이브(IVE), 다이아미디우, 거미 등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골프 팬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까지 유입시키는 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마이스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김종창 기자 jkjm@skyedaily.com

구미시, 이차전지 기업 유치 총력

‘인터배터리 2026’ 참가... 지역 정책 집중 홍보

경상북도 구미시가 이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한다.

구미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특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산업 인프라와 투자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배터리산업협회(KBIA)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7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7만5000명의 참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행사 기간 동안 부스를 찾는 참가객을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전시회 참가 기업을 직

접 찾아가는 투자 상담을 통해 실질적 인 투자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배터리 소재·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기업 네트워킹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미시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BaaS 시험검증센터 구축과 첨단화 지원 기반 마련 등 산업 지원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글로벌 공급 과잉·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구미시가 인터배터리 2026에서 투자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구미시

구미시